

# Planning special [6]

## '06년 미주 지역 계속 시장전망

by rob smith  
번역 : 본회 홍보팀

'06 년 닭고기 생산량은 약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03년도 대비 '04년도 증가치 4.0%나, '04년 대비 3.4% 증가가 예상되는 '05년도 생산량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성장전망은 수출회복과 사료값 인하기대로 인한 2년 연속의 성장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가슴살부위(업계의 프리미어 국내 상품 중에 하나인)는 '05년 가을에 가격 하락폭이 심각했다. 연평균 50센트 가량 하락했으며, '04년의 최고가와 비교하면 1달러50센트 이상 하락 했다. 위스콘신주 랭커스터에 있는 톨 그래스 컨설팅 주식회사의

로빈 풀러의 의하면 수요 강세를 예감할 수 있는 짐새를 느낄 수 있다. 우선 요 근래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04년도엔 가슴살 가격이 꽤 많이 올랐고 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낮은 가격은 더 낮은 가격에 구매력이 커지는 외식업체와 소매상들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서서히 쇠퇴하는 동안, '03~'04년에는 베이컨과 햄 버거를 먹는 패턴으로 이동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유행이 소비자들 사이에 번졌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또한 축산물의 수요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직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소비 패턴으로 이동중이다. 특별히 이는 육류에서의 닭 가슴살이나 프리미엄 샌드위치와 같은 고가의 아 이템이 가지는 에너지가와 그 효과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콜로라도에 있는 Lohr Associates의 폴러 와 게리 로(Lohr)는 닭고기 수요의 가장 큰 이슈는 닭고기 수출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거나 이미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 플루엔자라고 말했다.

Lohr는 또한 브라질에서의 곡물 생산이 '05년도 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브라질에서의 닭고기 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닭고기 수출 국들의 생산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미국은) 향후 몇 달 동안, 가슴살 수요의 회복과 수출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ohr는 '06년도 닭 가슴살 가격을 '05년의 1달러40센트~1달러 45센트보다 높은 파운드당 1달러55센트를 제시해왔다.

'06년도에 3.7%증가를 예상한 미국의 USDA는 '06년도 닭 가격을 올해 예상치 71.9센트를 조금 웃도는 파운드당 73.0센트로 제시했다. 하지만 코 네티컷 주 Storrs에 있는 Poultry Perspectives의 폴 오는 올해 2~3% 증가 전망에 대해 망설인다. 그는 지난 20년간 (1980년대 1990년대) 닭고기 산업이 연간 5~6%의 확장세를 이어온 것과 비교 하여, 그것이 적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연간 10~15%의 성장세를 보이는 닭 가슴



살 생산을 볼 때 닭고기 시장의 2~3%의 증가라는 것은 '06년도에 닭고기 공급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Indiana 주 Ft. Wayne 소재의 Express Market Analytics 사의 Sue Trudell 역시 업체 치킨 생산량이 1980년의 3배 이상에 달하며, 매년 치킨 공급량이 수백만 파운드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생산을 줄이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매년 불리한 상황에 맞서 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Aho는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주는 포 화상태가 있기 마련인데, 에너지 가나 조류독감공 포의 경우, 그 포화시점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는 많은 부분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동전과 그들의 구매의지에 좌우될 것이 라며, 그 때는 아마도 생산량이 제로가 되기를 기 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㉟

자료출처 : 「Feedstuffs」 11월 14일자